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죄인된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2천년전 오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이 हम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가로되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4호 2011년 12월 17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성탄칼럼

메리 크리스마스!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1년도 달력의 마지막 장이 달랑 한 장 남았다. 가는 세월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온 누리에 빛으로 가득찬 새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밝고 소망에

찬 새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성탄절은 길을 잃고 헤매는 인류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그리고 지혜와 축복을 가득 안겨 주는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인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인류에게 생명으로 오셨다.

고통하는 인류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지구촌에 화해자로 오셨다.

미움과 저주가 뒤엉킨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외로운 나그네 인생들에게 임

마누엘이 되시려고 친히 찾아 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지구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성을 지르며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2천여 년 전에 정작 예수님이 오신 날 유대 땅 베들레헴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따뜻한 자기들의 집으로 모셔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출고 뱀새나는 마구간에서 나셔야 했던 것이다.

금년에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

다. 나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까지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하자. 우리 모두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소중하게 모셔 들이자. 그리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진정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게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

CT, 잭 크랩트리, 필립 안시 등이 전하는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 소개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날보다 따뜻한 체온이 절실하게 그리운 날이다.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간극으로 만들어진 벽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화하심으로 깨뜨려주셨다.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 즉 사랑의 표현은 바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가장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벽한 감격과 사랑이 깃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그만큼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허리우드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들, 여러 언급들, 크리스마스 카드들, 심지어 어떤 설교들 -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명백해진다. 크리스마스는 사랑, 관용, 자선,

친절, 형제애, 가족애를 드높이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증진시키는 기쁨과 평화와 안전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전쟁이 없고, 분란도 없고, 미움도 없고, 비판도 없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이다.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없는 세상에 대한 감상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크

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인류를 사랑하는 인류애가 아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일단의 백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놀랍고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동경하는 구원받은 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니 티 투데이(CT)는 필립 안시나 세계적인 성경학자 잭 크랩트리(Jack Crabtree) 박사 등을 통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제시해준다.

(7면으로 계속)



2면

2011년 성탄절 설교 양춘길목사(필그림교회)



3면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4면

하루 6십만7천명 접속, 북을 접한다!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해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교회)

사 고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지역별 배부장소

▶ 뉴욕, 뉴저지 지역

할렐루야 기독교회 (718)762-0011
한국서적 (718)762-1200
임마누엘피아노(NJ) (201)943-5679

▶ 서부지역

기독교서적센터 (323)737-7699
도르가기독교서점 (714)636-7430
복음사 (562)865-4949
호산나서점 (626)810-0014
생명의말씀사(LA) (213)382-4538
생명의말씀사(OC) (714)530-2211
두란노서적 (213)382-5400
조이기독교회 (323)766-8793
(이외 신학대학 및 은행과 마켓)

▶ 기타지역

커투티켓 하트포트 제일장로교회 (860)643-4738
플로리다 템파한인장로교회 (813)881-0069
조지아 두란노&북마트 (678)957-1021
일리노이 헤브론교회 (847)394-8454
메릴랜드 지구촌교회 (301)460-1656
큰무리교회 (301)476-7613
볼티모어교회 (410)337-9448
버지니아 주 예수교회 (804)560-7500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215)542-0288
빅스카운티장로교회 (215)945-1512
필라안디옥교회 (610)828-6760
새한교회 (215)402-9922
노스캐롤라이나 전기현회계사 (704)332-5656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NY사무실 (718)886-4400
LA사무실 (323)665-0009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헌법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2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2년 1월 27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2년 1월 28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2년 1월 30일(일) - 2월 1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성탄서



한우연
시인/나성영락교회 권사

성탄의 기쁨이여

하늘 바라보는 축복의 아침
그 초록빛 고원마다
울려퍼지는 환희의 노래
성탄의 음향이 사위에 가득하다

저기 아름다운 천상을 본다
꿈의 계단 놓는다
성탄의 색깔이 거리마다 넘친다
캐롤의 에드벌론
바삭거리며 신호음을 낸다

우리를 신나게 하는 이웃
결에서 밀어주는 썰매 이야기
어디에도 어둠이 없고
사랑의 향기 머물고 있다
차오르는 희망의 숲이 손짓한다

고향에 이주하고 나서
웃음 들리는 하루가 우뚝선다
길목에서 서성이는 평화가 퍼져나간다
12월의 꽃무늬마다
영광의 단어 꽃잎처럼 은은하다



성탄설교

첫 성탄의 목자들 (누가복음 2:8-20)



양춘길 목사
(필그림교회)

크리스마스 시즌은 모두에게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매년 찾아오는 절기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졸업이 없이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앞에서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목회자 자신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일년에 불과 몇 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구에게 알리셨는가?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사람은 누구였는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한 곳,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만나보도록 초청장이 보내졌던 사람은 오직 한 그룹의 사람들 즉,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은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양을 지키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태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unclean 곧 부정할 자들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소외된 자들, 천하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아 계속 옮겨 다녔던 그들은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마을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래서 도적으로 몰리기 십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낮에는 양떼를 끌고 풀과 물을 찾아다니고, 월 때에도 그들을 지키며, 밤에는 양의 우리에서 양들과 같이 자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외롭고, 힘드고, 지루하고

위험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전 이스라엘이 오랜 역사를 두고 기다려 온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뉴스를 소외되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즉, 당시의 제사장과 랍비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별을 연구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경배하도록 초청해주시는 것은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민의 구세주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 되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요10:11, 벰전 5:4). 목자가 모든 양을 아끼고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who so ever believes in him...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궐, 거룩한 성전에 태어나셨다면 아무나 찾아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나 찾아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천하고 소외되었던 목자들에

게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찾아와 예수를 배움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민의 구세주요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 번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장면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Descriptive Silence)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천사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과 그 광채가 어떠했는지? 등등의 묘사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가 서로 말하되...”, “빨리 가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 또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두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요?

Raymond Brown이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는 “the shepherds were forerunners... of the future believers.- 그 목자들은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의 선구자들이었다”고 주석을 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세주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 목자들 등의 모든 중요한 역할들이 다 분배된 후, 별 대사가 없는 사관 주인의 역할은 한 정신성장이 느린 어눌한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관 주인으로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은 오직 한 마디, “사관에 방이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어 잘 진행되었습니다. 사관주인을 맡은 아이도 자기 순서가 오자 “사관에 방이 없어요” 하며 기대 이상으로 잘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채로 고통스럽게 돌아서 가는 것을 본 이 어눌한 아이가 그만 참지 못하고 대사에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성탄의 소식은 만민의 구세주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행사나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며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with Concentration in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Athletic Missio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원격교육(On-Line) 강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 F-1 VISA 발급 (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 E-mail. usa@midwest.edu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월드지, 2011년 “다니엘”에 알란 챔버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대표 선정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에 성향을 나면 서부터 가지게 된 본성이라고 강조한다. 즉 성별구분이나 기질과 같이 동성에게 끌리는 것도 일종의 본성(?)이기에, 변화될 수 없는 일종의 천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정형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전과도 같은 이 공식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전 동성애자들이 모여 만든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이다. 그리고 동 단체의 대표, 알란 챔버스(Alan Chambers)는 월드(World)지가 지난 1998년부터 선정해 시상해온 "2011년의 다니엘"로 뽑혀, 지난 20년동안 동성애자들과 전면전을 치루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한번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펼쳐나간 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2011 Daniel of the Year-Alan Chambers: Changes we can believe in).



올해 한때 애플이 궁지에 몰렸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반(反) 동성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삭제 요청을 해오면서 애플이 진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반(反) 동성애 선교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은 웹사이트를 통해 "동성애로부터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아이폰용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애플 측에서 4+등급 등급

텐츠는 모두 반(反) 동성애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국 애플은 이용자들의 항의에 손들고 문제의 앱을 삭제했다. 결국 15만명의 청원에 손을 들고만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스타벅스의 최고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미국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월로우크리교회에서의 강연을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다. 그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슐츠가 강의를 취소한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개최하

와 눈물로 범벅되는 여정을 거쳐 드디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힘들고 좌절감에 젖어 있을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동성애자에서 정상인의 삶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애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온전한 해결책이고,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기 위한 때는 다른 방법들보다 복음을 중심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그는 몸으로 깨닫게 된다.

받아 운영된다. 그리고 이성과의 결혼이 동성애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물론 그 역시 동성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고 나서 결혼을 해 자녀들까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거룩한 삶 즉 성화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성애를 극복하는 최상의 지름길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성경 근거로 동성애 치유...“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

복음은 동성애 삶을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유일한 힘

을 받아 앱스토어에 등록됐다. 4+등급은 애플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앱에 대해 즉각 퇴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쾌한 콘텐츠가 없다? 우리는 다름에 대한 권리를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 호소했다.

이들은 “엑소더스의 메시지는 증오심에 불타고 고집불통”이라며 “그들은 동성애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고, LGBT(성적 소수자)의 삶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왜곡된 정보와 고정관념 등을 전락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앱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웹사이트의 휴대용 버전으로 제작됐다. 단체의 행사 일정과 관련 뉴스, 엑소더스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영상 링크 등이 제공된다. 이들 콘

텐츠는 월로우크리교회는 반동성애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후원단체였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성애자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대표, 알란 챔버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도 엄중한 보안 경비와 보안 관계자들이, 그의 아내와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 동성애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챔버스는 크리스천이었지만 한 때 동성애자로 살아가던 적이 있다. 수년 동안 게이로 살았지만 죄책감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고 고백한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생활방식 즉 동성애를 비롯한 잘못된 생활과 죄악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부여받고, 엑소더스 플로리다 지부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

그러나 챔버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진리 때문에 마치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처럼 주류 미디어와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세력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동성애자들을 모독하는 언어이며 만용이라고 해석돼,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극단적인 메시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있는 정쟁들을 연속으로 전개하고 있고 뉴욕 주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미군 내에서의 동성애자 인정 정책(Don't Ask, Don't Tell) 그리고 미장로교 총회에서의 동성애자 안수 허용 등의 거센 물결들을 챔버스만이 혼자 자신을 따르고 있는 엑소더스 회원들과 막아내고 있는 것이다.

챔버스가 이끌고 있는 엑소더스는 철저하게 지역교회들의 도움을

이에 대해 남침례신학교 총장 R. 앨버트 몰러 Jr. 박사 역시 지지를 보낸다. 그는 최근 그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세속적인 방법의 치료법들은 부분적인 변화만을 가능케 하므로 동성애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죄를 성직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를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며 세속적 치료 프로그램 역시 죄인의 삶에 미미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 외에 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성직 회개하고 그로 인한 행동 양식들은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7면으로 계속)



시론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이다. 거리마다 성탄의 장식에 눈을 호사시킨다. 장식적으로 유명한 트리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 둘러보기도 한다. 일견 그 규모를 보니 비용이나 수고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밝고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신음하는 크리스마스 가 보이니 마음 아프기 그지없다. 날이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축소 혹은 왜곡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성탄을 지내다한들 맞출 수 없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

에서 성탄절 의미가 퇴락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탄의 상업성이 문제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추수감사절에 시작하여 연말까지는 이른바 대목이라는 상업적 특수 시기이다. 이때의 매출이 일년을 좌우하니, 각종 업체는 크리스마스는 블랙프라이데이 나 사이버먼데이처럼 판매전략 차원의 중요한 날로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각종 경제전문가들은 앞 다퉈서 가족당 크리스마스 소비지수를 발표해주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성탄의 본래적인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도 경제의 흐름에 기여하는 절기로 각인되고 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동안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가 되고 동방박사의 선물에 나타난 대상이 바뀌어 자기 기쁨을 누리는 이기적인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 성탄절의 신앙성이 회복되어 아들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선물로 나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라는 말도 경계해야 한다. 술과 파티의 문화에 빠져 가족에게 소홀했던 가장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구조가 나온 줄은 알지만, 성탄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말조차도 경계해야 한다. 예로부터 성탄절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이었다. 크리스마스 때 빵 먹으러 갔었다, 연극 구경하러 갔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성탄은 가족과 함께 보내자는 날이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데에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하지만 연중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날은 얼마든지 있다. 성탄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픈된 날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신 날이다.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여행가는 때보다는 예수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주님오심을 자축하는데 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어도 성탄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탄의 명절화, 이것도 경계해야 한다. 신앙성을 빼고, 상업성과 문화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제 크리스마스카드에서조차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는 말보다,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라는 문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여 예배드리지는 의미로는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중립적인 언어,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날을 만들려는 수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년에는 주일이지만 해마다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고백이 담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가 있는 카드를 사용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줄 알게 해야 한다. Christmas에서 존귀한 이름 Christ를 지우고 싶어 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더 명백하게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반응을 정돈하는 날이다. 아무리 캐롤(Carol)로 대변되는 문화적인 크리스마스 시대라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신다는 약속대로 이미 오신 주님께서 가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으니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준비를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지내는 줄 알지만 행여 이유 없는 기쁨으로 들뜨거나 의미 없는 파티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성탄절의 본질을 생각해보았다. Merry Christmas~!! 할렐루야~!!

제 45 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

일시 : 2011년 12월 18일 오후 4:00

장소 : 한미장로교회 (이운영 목사)

929 S.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213) 739-8824



박효우 목사(44대 회장)



김영대 목사(45대 신임회장)



김영도 목사(45대 신임 수석부회장)

제45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조직

- 회 장 : 김영대
- 수석 부회장 : 김영도
- 부 회 장 : 고재원, 고주모, 김기동, 김병용, 김선국, 김성대, 김영석, 김은목, 김재울, 김중태, 김철, 김철수, 박만순, 박병구, 박은중, 박중대, 박창형, 백지영, 서요한, 심명구, 안광식, 임규웅, 유우석, 우광성, 이광재, 이석부, 이성도, 이송철, 이원재, 이우형, 이철훈, 이준준, 이종애, 임의치, 전석호, 정요한, 정중윤, 조 현, 조경현, 조은영, 주성영, 주재임, 최순길, 추창효, 현에스더

- 총 무 : 허귀암
- 부 총 무 : 고병권, 김중근, 박근덕, 유경식, 이순환, 이현국, 조명철
- 협동총무 : 나영재, 유창렬, 정경화, 정연성, 정중환, 조주현, 진석호
- 서 기 : 김수재
- 부 서 기 : 성준기
- 회 계 : 양석용
- 부 회 계 : 최성권
- 감 사 : 장재원, 이흥현



Southern California Ministers Association

7713 Quill Dr., Downey, CA 90242

연락처 : 총무 허귀암 목사 (714) 308-7308

□ 분과위원장

- 교육분과위원장 : 김 호
- 교정분과위원장 : 이병희
- 구제분과위원장 : 김수철
- 군선교분과위원장 : 백형로
- 대학청년분과위원장 : 김철수
- 목회분과위원장 : 김사무엘
- 목회자지녀장학위원장 : 임형진
- 복지분과위원장 : 엄규서
- 사모분과위원장 : 김순옥
- 사회분과위원장 : 박보세
- 상담분과위원장 : 김영길
- 상조분과위원장 : 윤태환
- 선교분과위원장 : 김영일
- 신학분과위원장 : 김남을
- 아동분과위원장 : 엄테레사
- 인문분과위원장 : 전재학
- 여성분과위원장 : 황에스더
- 예배분과위원장 : 강종민

- 원로분과위원장 : 이상현
- 윤리분과위원장 : 송정명
- 음악분과위원장 : 송규식
- 의료분과위원장 : 김인철
- 이단대책실행위원장 : 한기완
- 이민신학분과위원장 : 오상철
- 장애우분과위원장 : 오진형
- 재정분과위원장 : 석태은
- 전도분과위원장 : 강순영
- 청소년분과위원장 : 여병현
- 체육분과위원장 : 강 풀
- 진교분과위원장 : 박소건
- 통일분과위원장 : 이수원
- 학술분과위원장 : 박성근
- 한미교류평신도위원장 : 임혜빈
- 홍보분과위원장 : 박신욱
- 회계수정위원장 : 박효우

* 모든 명단은 사정에 따라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성탄 축하 공연

어린 시절 성탄축하공연을 위해 성극과 찬양, 율동 등을 준비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성극 대본이나 행사를 위한 가이드 책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주일학교교사들이 손수 대본을 만들곤 했습니다. 성극을 위한 도구들도 색지나 박스 등을 이용해서 뱀뱌작업을 하며 만

들었고, 의상을 만들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사서 동방박사, 천사, 목동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마리아 역할을 하는 아이는 엄마의 한복을 빌려서 입었고 요셉은 아버지 양복깃도리틀을 입고 성극을 했었습니다. 기억해보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탄축

하공연을 보면서 웃기도 했고 감동 받아 눈시울을 적시던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순수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성탄성극은 동서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줍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4학년이 해당되었지만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2학년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해마다 성탄절이면 성극을 하게 되는데 그 해에는 윌리라는 아이가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었고 극중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는데 장면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인인 역할은 나와서 방이 찾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처 그 대사를 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맡은 아이들은 간절히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아내가 금방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

탁드립니다." 그러자 여관주인으로 분장한 윌리라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록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주 읽어주었습니다. 한동안 서 있던 윌리는 선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돼요! 방이 없니까요. 가세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대본대로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윌리가 돌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들어와요!"라고 각본에도 없는 대사를 했습니다. "내 안방을 쓰세요. 내 방에 들어가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

다. 이번 초창기에 가족과 함께 수정 교회 성탄공연을 보러간 적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공연에 놀라움 따랐습니다. 전장

에서는 천사가 날아다니고, 양, 염소가 등장하고 동방박사들은 나라를 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은 극장에서 쇼를 관람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의 성탄축하공연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공연을 소개해준 후배에 의하면 공연을 위한 연습은 일년전부터 배역을 정하고 소품들을 준비하며 그해 공연이 끝나면 곧이어 다음해 공연을 준비하라고 하니 더욱 놀라움 따랐습니다. 물론 공연의 규모에서도 놀랐지만 공연준비를 위해 일년내내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놀랐습니다. 고작해야 몇 주 정도를 분주히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고작이니 말입니다. 이제 이런 성탄축하공연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후세들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 세미나 참석했을 때 한 강사의 강의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합니다. 미국교단의 연가통계자료에 의하면 건물유지를 못하여 많은 시골교회들이 폐쇄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

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통계입니다. 청년, 학생은 물론 주일학교가 없으니 교회의 존재가 불투명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통계입니다. 성탄이 되어도 성탄축하공연은 꿈도 꾸지 못하고 노인들 몇몇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성탄축하행사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던 분주한 손길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을 주려고 굶던 쿠키냄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래 고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젊은 층들이 대거 타 종교로 이동하고 있어 교회가 고령화되어간다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공연을 준비했던 열정과 순수함이 그리고 윌리처럼 맑고 깨끗한 모습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후세에 이어지는 성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루 6십8만7천명 접속, 복음 접한다!

크리스천포스트, 인터넷선교의 현장 "글로벌미디어 아웃리치" 소개

전자메일, 파일전송, 원격로그인, 파일검색, 주제토론, 실시간 원격대화, 어느 정도 나이 든 목회자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단어들이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생경보다 더 가까운 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지리적인 경계, 시간적인 경계, 그리고 연령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첨단 선교도구로서 인터넷을 통한 선교는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지역교회에서나 선교 현장에서의 소위 "인터넷 복음전도"(Internet Evangelism)는 매일 매일 접속률을 갱신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Post)지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크리스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온전한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한다(Study Reveals Internet Evangelism Is Effective).



191개 국가들에서 687,000명이 동 사이트에 접속해 56,854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것이다.

동 단체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샬레스(Monica Sales)에 따르면 GMO는 누군가가 동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2010년 한 해 동안 동 사이트에 한번이라도 접속한 숫자는 무려 1억천2백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선교 단체들은 일단 동 단체들에서 만들어 놓은 질문이나 내용에 응답을 하는 사람에게는만 답신을 보내는 것같이, GMO 역시 2천2백만 명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음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메일을 받으면 즉각 질문이나 의문 사항에 응답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기본 자격이나 조건들만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GMO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거나 선교지를 향해 떠나지 않고서도 자신의 집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충실한 일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MO 창립자이자 이사장인 윌트 윌슨(Walt Wilson)은 GMO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지역교회에 연결시켜 온전한 성장이 구비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GMO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른 언어들로 구성돼 있고 영어 웹사이트로는 다음의 사이트들이 대표적이다:

- ▲Whois Jesus-Really.com
- ▲GodLovesTheWorld.com
- ▲4StepstoGod.com

구촌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2010년 한해만 GMO는 1천5백만 명의 불신자들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변화시켰다.

결국 인터넷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방식으로, 한편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역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역이란 단어는 전임 사역자나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사역자를 지칭하는 말로 한정해서 쓰지 않는다. 복음 전도 활동에 국한시키지도 않는다. 복음 전도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누구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이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호평이든 약평이든 증거 해야 하는 증인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입력하는 모든 단어, 작성하는 화상,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모든 연결망 역시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GMO의 사역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현재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 인터넷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바로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Global Media Outreach, GMO)이다. 동 단체는 2004년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에 의해서 창립돼 2010년 12월 중 하루 동안에만 687,000명이나 접속하는 기염을 토할 정도이다.

현재 GMO 소속 인터넷 선교사들은 -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은 - 지구촌에 5,500명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

▲GrowingChrist.com 윌슨은 현재 첨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라 2020년경이면 지

2010년 한해 1억천2백만 접속, 1천5백만명 회심
인터넷선교사 5,500명, 해당지역에서 질문 즉각 응답

사역자 청빙

예배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약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한다는 Vision을 가지고 13년전 북가주 산호세 인근에 위치한 팔로알토에 세워진 남 침례교단 소속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한빛 성서 교회에서 영성있는 담임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 청빙 분야
- 청빙 자격
- 대우
- 지원 서류
- 제출 기간
- 제출처
- 전화

한빛 성서 교회 청빙 위원회 위원장 임대순 집사
한빛성서교회
(Hanbit Bible Church)
687 Arastradero Road, Palo Alto, CA94304

EM 사역자(part-time) 및 반주자 청빙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와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자격(EM사역자)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자격(반주자)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제출서류 - 이력서 (공통)
- 목회소견서 (EM사역자)

접수마감일 - 총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밴쿠버 빌라델비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가격: 30달러
(미국내 우송료 포함, 타 국가는 우송료 별도)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lectron 하나를 골라내는 확률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한다. 절대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성취가 불가능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언의 성취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성탄절의 정확한 날짜는 언제일까?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서방교회는 12월에 동방교회는 1월에 성탄절을 지켰다고 정확하지 않은 날짜라고 성탄절을 거부한다. 성탄절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이다. 사실 첫번째 성탄절은 봄이나 여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절적으로 볼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때는 12월이 아니다. 늦어도 10월 이후에는 양들은 들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성탄절의 기원은 다양한 추측을 하게 한다. 먼저 고대 이방의 풍습 중에서 Saturnalia는 12월 19일에 시작한다. 이 절기에는 축제를 하고 선물을 주고 음악을 연주하고 촛불을 켜고 푸른 나무를 장식하고 야단법석의 축제를 한다.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이런 축제들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

스(Julius Africanus)가 주후 221년 그의 연대기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록했다. 이 주장은 다른 날짜들에 비해 그리 우세한 입장은 아니었으나 최초의 종교회의인 325년 니케아회의 이후 점차적으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을까? 초대교회는 생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나 테롤리안은 교회의 주요 절기들을 소개하며 성탄절을 언급하지 않았다. 3세기 교부 오리겐은 "바로(창40:20)나 헤롯(막6:21)과 같은 죄인들만 생일을 지키지, 훌륭한 신자들은 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성도들의 순교일에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성탄일이 역사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그 날짜가 원래 이방 축제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것이라고 성

주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의 계절이다. 크리스마스 장식의 집과 거리를 메우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축하하는 감사의 계절이다. 모든 절기 중에 절기요, 모든 절기의 시작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시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구덩이보다 못한 인생인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헌신의 증거이다.

첫번째 성탄절과 오늘의 성탄절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기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놓고 상업적인 축제로 생각하는 경향의 문제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날짜와 기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탄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 다

아닌, 의사도 없는 가운데 뱀새나는 구유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신 만왕의 왕의 여정이신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온 세계의 광파라와 불꽃놀이가 없었다. 그 어느 날과 같은 매우 조용한 밤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탄생을 알리는 전화도, 매시야의 탄생을 알리는 CNN 긴급뉴스도, 세계 최대의 사건현장을 보도하기 위한 신문이나 방송기자들도 없었다.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탄생때문에 다른 친족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마1:19). 외로운 탄생이었다.

땅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가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천사 가브리엘이 바쁘게 움직



첫번째 성탄절과 오늘의 성탄절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버려야 할 성탄절에 대한 자세이다.

성탄절은 무엇이나 버릴 것이 없는 절기이다. 성탄절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겨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보자. 오늘로 계산해보면 약 100마일 정도이다. 오늘의 교통수단으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지만 2천년전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먼저 걸어야만 했다. 또한 가파른 골짜기와 산이 어려움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해산할 날이 임박한 임신부의 동행이다. 의사가 동행하지도 않는 이 여정은 의사가 결단코 권하지 않을 매우 위험한 여정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는 길이다.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가 호적하라 명했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움직이신 사건이다! 이 여정이 6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계산한다(눅2:1-5). 다른 지방에 온 여행자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목을 방을 찾지 못하고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머무르게 된다. 긴 여정의 피곤함 속에서 병원에

였다. 세례요한(눅1:19)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포(눅1:26)를 했다.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의 70이레(70weeks) 예언에서 나온다(단9:20-27). 그리고 그 예언은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정확히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하늘을 뒤덮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소외되고 가난한 힘없는 목자들만 체험한 감격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통계학자가 계산을 해보았다. 모든 예언은 그만두고 오직 다섯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텍사스의 전역에 25센트 동전을 1m의 높이로 깔고,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취하여 표시를 한다. 그리고 텍사스 전역에 1m의 높이로 깔린 동전들을 다 뒤집어서 놓은 후에 원래의 동전을 찾아내는 확률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300여 가지가 넘는 예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은 1/1099보다도 낫다.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이 확률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전자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태양신의 축제와 관계 짓는 사람들도 있다.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와 출생일이다. 미트라와 출생일은 12월 25일로 지켰다고 한다. 로마의 군인들은 미트라를 태양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믿었다. 군인환제인 루키우스 아우렐리아누스는 주후 274년에 태양신 미트라를 축제를 선포했다. 그리고 콘스탄티네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인 주후 366년 태양신의 축일을 예수 탄생일로 확정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는 12월 25일이 태양의 탄생(Natalis Invicti)을 기념하는 겨울 축제일이었다. 태양이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커지는 것을 축하하여 대규모 파티를 열었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4세기경부터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아주 훌륭한 상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요1:9), 세상의 빛(요2:9), 공의의 태양(말4:2)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태양 축제는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현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는 율리우스 아프리카누

탄절을 부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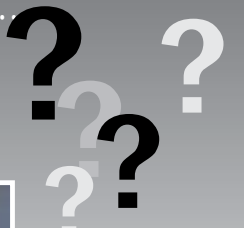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이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어도 계속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 설사 오늘의 성탄절의 날짜가 첫번째 성탄절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지 '날짜' 그 자체가 아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은 우리가 매일 매일 기념해야 마땅하다.

누가 뭐라 해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맘뎠으로 느낄 수 있는 절기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감동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감격이요, 또한 더럽고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한 축복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신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은혜와 감동을 주신 두고두고 기억할 복된 절기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 저는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여 어느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습니다. 이번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전도 집회에 설교를 맡았는데 전도 설교를 청중들에게 질문식으로 답하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이 전도 집회에 좋을런지요? -나성에서 진 목사

A: 전도설교는 보통설교와 다르며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전12:1-8절의 본문으로 3가지 질문을 솔로몬이 자기에게 던진 질문을 해보십시오.

1. 우리 인생은 과연 영원한것인가? 답은 전12:1절에 나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젊음과 힘, 아름다움, 열정, 청년 때의 자신만만했던 시절과 영화는 곧 사라지고 얼마있지 않아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날이 곧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닥쳐 올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환자를 시한부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만이 시한부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은 누구나 하나같이 시한부인생입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테드라인을 향하여 카운트다운하며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마치 연극배우와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잠시 나와서 움직이다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히 퇴장해 버리는 배우와 같습니다.

전도서 본문으로 영원과 행복, 죽음 후에 초점 맞춰

2.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을 세상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지식주의에서 찾으며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파고듭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해보았습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허무나 무의미 등은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실감을 합니다. 지식도 죽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달로 편리한 세상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유토피아(Utopia)가 아닙니다. 오히려 디스토피아(Distopia), 즉 심각한 비인간화 현상이 난무하는 황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를 보십시오. 짐승도 하지 않는 추잡한 동성애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한 행동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미인 면모가 남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명성과 돈과 인기는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허공을 걷는 삶이요 폐장한 해수욕장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지식이나 돈, 물질, 명예, 성적 쾌락 등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듯이 우리인생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안에 돌아가 될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3. 인생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전12:7절을 보면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은 흠으로 지었기 때문에 흠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다마는 그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히9:27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흑타이(Black Tai)



흑타이족은 태국의 중부와 남부 지방인 농카이(Nong Khai), 코랏(Korai), 로에이(Loei), 사라부리(Saraburi) 등에 널리 흩어져 살고 있다.

흑타이족은 백타이족과 마찬가지로 종족 여성들의 상의 색으로 인해 이름지어졌다. 백타이족들도 흑타이족의 언어를 일부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두 종족이 서로간의 오랜 접촉을 가졌고 이로 인해 서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흑타이족은 "무앙타엥"(Muang Theng)부터 이전에는 전쟁포로였던 이들의 후손이다. 끊임없는 중국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했으며 이동하면서 많은 종족들과 문화들을 접목했다.

삶의 모습

흑타이족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가정이다. 가족구성원들은 함께 생활하고 먹고 농사를 짓는다. 직계가족 전체가 종종 한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한 성숙한 존중이 있다.

흑타이족 남성과 여성 모두 검정색의 옷을 입는다. 여성들은 넓은 소매의 긴 외투, 깍 끼는 검정 상의, 또는 좁은 소매 옷과 검정치마를 입는다. 쌀(wet rice)농사를 짓는 계곡에서 생활하며 관개법을 사용해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

흑타이족 사람들은 작은 마을 영지로 조직되었으며 각 마을은 하나의 계곡에 형성돼 있다. 각 계곡은 "차오 무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전체적으로 흑타이족 사회는 연명, 직업, 부, 거주 등에 의해 사회계층이 나뉜다.

흑타이족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종족의 수장이다. 남편과 아내가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거의 모든 일의 영역에서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모두 밭을 갈고 땅을 갈고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한다.

하지만 무역통로가 되는 길 주위에 사는 많은 이들은 대장정이나 같이 전문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로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접근용이성이 높아지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한다.

신앙 96%가 전통민중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테라버다(Theravada) 불교와 민중적 정령숭배가 혼합돼 있어 흑타이족과 여성 모두 밭을 갈고 땅을 갈고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한다.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조상숭배 의식을 행하며, 모든 물체와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또한 이들은 "수호신"(Guardian Spirit)과 "지역의 신"(Locality Spirit)의 존재를 믿는데, 이것을 통해 사회의 각기 다른 수준을 구분한다.

필요 하는 것들 흑타이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평화의 시기를 가져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일부가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몇몇 선교단체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기는 하나, 알려진 기독교인은 100-200여명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교회들, 성탄예배 축소하거나 없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산타'나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는 시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1천 명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1%만이 올해 성탄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인 에드 스테처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접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많은 비(非)예배주의(non-liturgical)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릭 웨렌 목사의 새들백교회는 예배를 축소했다. 지난해에도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미국 대형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주일예배를 취소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성탄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웨이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70%가 넘는 미국인들이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는 데 동의하고, 역시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즐길 것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테처 대표는 이같은 인식이 성탄예배 참석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나는 언제나 이 시즌의 이유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드러지지 않는다"며 "많은 음악과 불빛이 있지만

예수는 충분치 않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물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휘 선교사 카불서 안타까운 희생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미국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 한 달 여만에 폭탄 테러로 희생됐다. 지난 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아불 파달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망자 59명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이경휘(47·사진) 선교사가 포함됐다고 인터콥(INTERCP) 선교회가 밝혔다.



이 선교사는 10대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에서 컴퓨터 학과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까지 IT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1997년 교회에서 태국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됐다.

고 대천덕 신부의 현재인 사모 뇌종양 투병 중 기독교 공동체인 예수원 대표이자 고 대천덕 신부의 아내인 현재인(90·Jane Grey Torrey·사진) 사모가 현재 미국에서 뇌종양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원 삼수령센터 벤 토레이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사모는 최근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 또



레이 본부장은 "현 사모의 종양이 작아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기도해왔다"며 "하지만 MRI 촬영 결과 종양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모는 육체적 쇠약과 종양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은 맑은 상태이며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예수원 측은 밝혔다. 현 사모는 지난 3월 초 오른쪽 다리에 피부 염증인 세포염으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가 재발돼 4월 말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현 사모는 1948년 대전덕 신부와 결혼, 65년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을 시작한 이래 변함없는 부드러움과 확고한 믿음을 실생활에서 구현해왔다.

성추행 혐의 에디 롱 목사, 결국 강단 떠날 듯

에디 롱 목사가 뉴버시미셔너리침례교회(New Birth Missionary Baptist Church) 강단을 당분간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AIC가 6일 보도했다. 뉴버시침례교회는 1987년 롱 목사 부임 이후, 그의 카리스마적이고 역동적인 젊은 리더십을 기반으로 5년 만에 성도수가 8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교회로 성장해 현재 2만5천명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롱 목사의 부임 10년 만에 리틀리안 지역에 1만 석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예배당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이외에도 마이애미, 덴버, 샬럿 등에 지교회와 세우고 텔레비전 방송을 송출하고 국제적인 사역을 하는 등 안팎으로 규모를 키워왔다. 포드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에디 롱 목사 역시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35만 불 가치의 벤처리와 개인 제트기를 소유하고 140만불 저택에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왔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명성에 흠이 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9월, 전 교회 성도였던 네 명의 젊은 남성들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다. 처음 이 소식을 접한 뉴버시침례교회 성도들은 혼란을 느끼면서

도 에디 롱 목사부부를 옹호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계속되는 네 남성들의 폭로와 화려했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주 21년간 에디 롱 목사와 가정을 이룬 아내사 롱 사모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롱 목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롱 목사는 잠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여전히 뉴버시침례교회의 목회자이며, 양떼들을 지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흔들린 교회의 미래와 그의 행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적·백인 위주' 이미지 미 넘침교회, 명칭변경 고심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개신교단이자 최대 선교사 파송단체인 남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가 166년간 유지해온 교단 명칭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소하고 있는 교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소속 라이프웨이리서치팀은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지는 추천서를 브라이언트 라이트 총회장에게 제출한 상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2월 임원회 모임 때까지 비밀에 부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이트 회장은 1천6백만 교인을 대표하는 교단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침례교(Baptist)라는 명칭은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남침례교회는 근래 미국 내 선교사 파송운동 등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교단 교인수가 감소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팀 에드 스테처 회장은 "교인수가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부정한 추세를 교단이 특별한 변화를 취하지 않는 한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이프웨이리서치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한 결과, 40%가 교단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44%가 교회가 남침례교 소속임을 알았을 때 교회 방문 및 등록을 망설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3% 응답자가 남침례교회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지만, 부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게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같은 예배! 신바람 나는 설교!

한국교회정보센터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독!

교회력에 따라 만들어진 1년 52주 주일예배와 특별예배를 위한 설교와 예배 가이드 북

복음적인 예배와 설교를 위하여

- 김항안 선종목 목사 공저 ● 바인더(A5)/282쪽 ● 가격 : 19,000원
- 부록: 52주 주일예배 전체 파워포인트 영상 CD 제공



성탄카드 대신에 보내 드리는 마음의 책

- 김항안 목사 저
- 판형 : 4×6판 / 80쪽
- 가격 : 2,800원
- 우편 봉투 내장



올 성탄절에는 카드 대신에 "성탄 카드북"을 보냅니다.

김항안 목사가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신바람 목회의 부식독! Why Christmas? 왜? 크리스마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성탄절을 축제의 한 파장으로 만들어 가는가? 왜? 그렇게 많은 풍습과 전통들이 만들어 지는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그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성탄 카드 대신에 보내드리는 마음의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신바람 나는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실제 프로그램 7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설교 46편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예화 127편
- 판형 : 신구판 / 416쪽
- 정가 : 10,000원



올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카드 실제모습]

- 200개의 다양한 말씀과 그림
- 교회주 소, 전화, 이름 등 인쇄
- 코팅과 함께 리본 제공
- 송구영신 예배를 위한 자료 제공
- 200성구에 대한 심방설교 제공
- 주문 수령만큼 '책갈피' 제공



은혜스러운 송구영신 영상비디오

- 합희, 김동, 소망 절단기 있는 영상비디오 & CD

한국교회정보센터 **엠펙글로벌리아** www.kcdc.net 824-3004, 5004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CT, 잭 크랩트리, 필립 안시 등이 전하는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 소개

(1면에서 계속)

먼저 필립 안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첫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캐롤로 노래되고, 교회 어린 아이들의 성극을 통해 이야기 되고, 각종 카드들로 묘사되는 크리스마스 현상은 이제 너무도 낯익은 것이 되어서 그 현상 배후의 메시지를 간과하기 쉽다. 예수의 탄생기사를 또 한 번 읽고 난 후, 나는 자문해 본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면, 그 첫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 때 내 머릿속에 연상된 단어들을 통해 나는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곁



을 볼 때 오는 즐거움이다. 우리의 기쁨은 승리의 소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다.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뤄질 것이다. 내 일생동안 나를 포로로 사로잡았던 악으로부터 내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자유가 있을 것이다. 해방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 우리의 왕과 승리의 영웅이 오셨다!

G. K. 체스터튼은 한마디로 크랩트리 박사의 성경적 지식을 요약한다: “성탄절 어린이들이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은 양말에 튼튼한 두 다리를 넣어주신 것을 인해 우리는 얼마나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인가.”

결론으로, 데이비 메시(David

reason that he gave his life)/그 분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도 우리 때문이었어요(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그분은 길 잃은 세상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To show us the reason to live)/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선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우리 자신을 준다든 것과 그것의 의미를(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어느 어둡고 구름이 잔뜩 낀 날에 한 사람이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이유를(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모두 사랑 때문에, 모두 사랑 때문에(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드디어 나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어요(I've finally found the reason for living)/그것은 내 마음의 모든 부분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It's in giving every part of my heart to him)/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말 속에서(In all that I do, every word that I say)/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을 위해 드릴 거예요. 그분을 위해(I'll be giving my all just for him, for him)/그분 이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때문입니다(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그분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그분은 길 잃은 세상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To show us the reason to live)/그분은 나의 살아갈 이유입니다(He is my reason to live).

평화 아닌 승리의 소망이 주는 기쁨 선이 악을 이기는 하늘나라의 도래

손, 가까이 갈 수 있음, 패배자, 용기... 하나님에게 적응하기에는 결코 적당치 않은 말들 아닌가.”

잭 크랩트리 박사는 매켄지 연구소(McKenzie Study Center)의 소장이며, 그가 1981년부터 강의해온 구텐베르크 칼리지의 학장이다. 그는 안시의 적절한 지적을 좀 더 확대 설명해준다. 즉 그는 크리스마스의 상업화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물질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고 흔히들 주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대중적으로 이해되기로는 크리스마스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

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사이에, 그리고 다른 인간들 사이에 어떤 전쟁도 적대감도 없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삶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예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움과 잔인함을 근절시켰어야 한다.

오히려 그는 전쟁을 주러 오셨다. 선과 악사이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싸움을 싸우러 오신 것이며, 그 전쟁의 와중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가져다주기 위해 오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승리를 의미한다.

크리스마스는 반목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이 반목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날-종식되고

영원히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우리 앞에 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때까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으며 대적들이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삶을 수월하게 하지도 않고, 순조롭게 하지도 않는다. 삶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터의 희생과 고난으로 점철돼 있다. 우리의 기쁨은 원수를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가 싸움에 나서서 우리의 원수들이 뒤돌아 달아나는 것

Meece)가 부른 “우리 때문에(We are the reason)”라는 가스펠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어렸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아침을 꿈꾸며(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ing)/우리가 받을 모든 선물들과 장난감들을 우리가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 어느 복된 밤에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서요(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우리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준(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그분이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We were the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3면에서 계속)

하지만 몰러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인간의 삶에 전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성애자들의 삶을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

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다.

결론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명된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동성애를 일종의 문화적 성향이자 인권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동령 후보들까지도, 동성애자들이나 옹호 단체의 영향력을 생

각해서, 말을 삼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챔버스는 “기독교는 동성애자 치유라는 주제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적 확신을 천명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이며, 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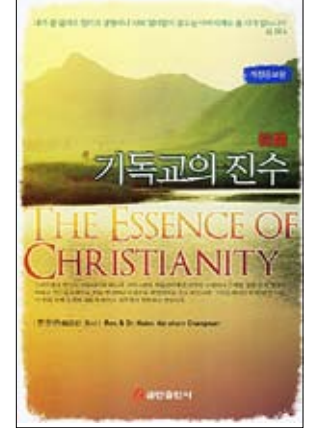
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에 대한 강한 확신 안에서 동성애자 치유를 다루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월드지 의 올해 “다니엘” 선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새책 소개

“기독교의 진수”

개정증보판

저자 한창완 목사



한창완 목사(시카고 영락교회 원로)가 “기독교의 진수” 개정증보판을 최근 출간했다. 개정판에 비해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했으며 페이지도 무려 77페이지가 늘어났다. 한 목사는 이 책의 주제를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크리스천의 거듭남이란 도덕적인 수양이나 수련을 통한 인격 향상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명상이나 각성의

시대를 막론한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 자세 강조

로 깨닫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씨(벧전1:23)가 우리 속에 심겨져 새롭게 태어나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이 말이 이 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거듭남을 강조한 한 목사는 이번 책에서 “거듭남”을 3장으로 따로 분류했다. 또 개정판에서는 인간론 안에 포함됐던 것을 4장 “성경론”, 5장 “진화론”, 6장 “삼위일체론”, 7장 “신론”, 8장 “기독론”, 9장 창조론으로 각각 분류했으며 10장에는 “인간론”, 11장에는 “종말론”을 다뤘다. 종말론에는 ‘짐승의 표’, ‘자살’, ‘교회의 분쟁’ 등의 항목을 두어 최근 기독교계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었다.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밝힌 한 목사의 말이 실감난다.

1장 “구원의 길”(시간적 3단계 구원)과 2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삶의 목표, ‘천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일’, ‘축도’, ‘주님과 동행조건’)는 개정판과 동일하다. 부록으로 수록된 △시련과 △응답하는 기도는 영어번역이 함께 첨부돼 있다.

총 420페이지. 칼란출판사 발행.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1)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호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3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9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한류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남가목예배: 부: 오전 7:40 주일남가목예배: 주: 오전 9:30 주일남가목예배: 여: 오전 9:30 주일성경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8077 Tel: (82)31-984-295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수송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금요성경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월) Tel: 39-06-827-3585 39-349-339-1726, 39-06-943-9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용인구 죽곡동 622-3 (158-053)	새이레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주일 4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8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매월 1회)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2-562-2734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 (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성동 137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양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027-5511 서울 용인구 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주일예배 4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오후 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인촌동 20-3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사택(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겸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4:00 주일 7부예배: 오후 7:00 Tel: (8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2동 28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7.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성경의 기적들이 정말 있었는가?

기적이란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과학주의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들 중에 하나다. 성경 맨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과정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들을 생물학적인 과정, 화학적인 과정, 물리학적 과정 등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예외 없이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요소로 된 우주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이 온전한 시간(초, 분, 시간 등), 온전한 공간(부피), 그리고 온전한 질량(무게, gr 혹은 kg)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서로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 모든 과정에서 각 요소들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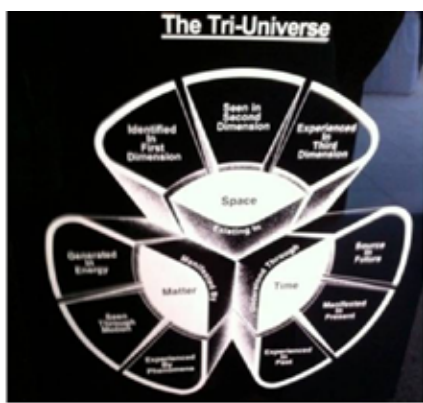
예를 들면, 수력발전소에서 떨어지고 있는 물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부피를 가지고 있고, 시간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지만 이 세 요소에서 한 요소만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질량/공간/시간 이 세 요소는 3위 일체 하나님의 성격을 닮았다.

그러므로 질량/ 공간/시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창조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물리학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던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선언은 창조 사실이 지극히 과학적일 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과 시간에 구속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성경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하오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기적들을 불신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두 가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질(혹은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과 물질(혹은 에너지)의 질에 관한 법칙으로 전자는 물질(에너지)의 양(quantity) 보존법칙, 후자는 물질(에너지)의 질(quality) 감소법칙이다. 이 법칙들은 증기엔진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열역학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더 연구를 해보니 이 법칙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열역학 법칙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볼 수 있어

제1법칙: 물질 존재는 기적이 있었다·제2법칙: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세 개의 우주가 모인 한 개의 우주

물질, 공간, 시간 이 세 요소는 각각 완전히 독립된 요소지만 한 요소만을 분리해 낼 수 없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열역학 제 1법칙, 에너지의 질 감소에 관한 법칙을 열역학 제 2법칙이라고 부르며 둘 다 절대법칙으로 여겨지고 있다(Lieb and Yngvason, Physics Today, April 2000, p.32).

에너지 보존 즉 에너지는 열이나 빛 등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열역학 제 1법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양은 불변이란 말이다. 또, 이 법칙에 의하면 물질이나 에너지는 존재하면 안 된다. 에너지는 소멸될 수도 없거나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혹

은 물질)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가 생겨나는 경우는 절대법칙인 열역학 제 1법칙을 위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질의 존재는 기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의 기적은 지극히 논리적인 선언이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열역학 제 2법칙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붕괴하고 우주가 완전한 해체를 향하고 있다는 이 무질서 증가의 법칙은 우주가 과거 언젠가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다. 아직도 무질서해지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더 질서가 있었고 맨 처음에는 완벽한 혹은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창조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선언은 열역학 제 2법칙에 잘 들어맞는 선언이며 이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성경의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분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생명체는 열역학 제 2법칙을 뛰어 넘는 기적을 행하신 창조자의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세포는, 마치 부품이 500만개나 되는 보잉747 비행기 200대를 압축해서 세포처럼 작은 공간에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이다. 비행기 부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이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넣어 조립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수십억 개나 되는 세포의 부품들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설사 만들어진다 해도 그렇게 작은 공간에 적재적소에 옮겨져 고도의 질서를 갖춘 시스템으로 조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세포와 생명체의 존재는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사건과 그 사건이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질의 존재 그리고 생명체나 천체 등 시스템의 존재는 열역학 법칙들에

제한 받지 않는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 창조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창조 주간의 창조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233번의 기적들(Henry M. Morris, The Defender's Study Bible, Appendix 9)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의 기적이 왜 그 기적을 기록했는지에만 중점을 두고 사실을 외면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과 현실을 분리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핍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20).

이 세상이 존재하는 무슨 물질을 보든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무슨 과정을 보든지 이것들은 열역학 법칙들을 따르고 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는 무슨 물질을 통해서든지 무슨 과정을 통해서든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의 임무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무조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차려진 진치상과 같습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 살아 되고 피가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로 변해 내 생명을 유지하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육체가운데 있는 인간은 환약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위기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성속도를 말해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 정서는 불안하여 불신하고 불만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것이 건드려지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하며 내재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꼭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따듯한 위로로 어루만져주며 감동으로 바뀌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을 돌아보며 해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배후신 은혜를 음미하며 그분의 섬세한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 "감동치 못할 시편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편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전10:13). 한 말씀 한 말씀을 영혼 깊숙이 음미하며 아멘 아멘 할수록 베풀어주시신 그분의 사랑에 취하는 동안 시간 약한 양심이 부추겨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며 불안한 속내로 불신을 드러내면 마음이 눈 녹은 듯 사라지고 비록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찌라도 나는 여호와의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하박국의 심정과 하나가 되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절망의 위기들을 뚫고 나오게 길을 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위하시니이다." 다시 눈을 떠 불안한 현실을 보며 달려드는 불안을 말씀으로 물리쳐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확신으로 희망을 부여잡으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평생 주님의 선하신 마음 인자하신 그 마음이 나를 채워주시어 내가 기록하신 하나님 곁에 함께 동행 하도록 영원히 주님은 붙들어주시는 것이시지요. 아-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완전케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재하는 죄성의 육의 소리를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나를 사랑의 위협에서 고집내어 속에서 영생하도록 삼순는 주님과 의예배자로 살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거실 때 내 생가운데 생명이 터져 나와 나도 살고 너도 살립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늘의 통로 되소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p>갑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월-토)</p>	<p>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8:00 수요 4부 예배: 오후 8:30 수요 5부 예배: 오후 11:00</p>	<p>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p>	<p>풍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복합)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p>	<p>맨 앨 교회 담임목사: 김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30</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병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8:0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1:30 수요 6부 예배: 오후 7:00 수요 7부 예배: 오후 10:30</p>	
<p>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수요 3부 예배: 오후 11:30 수요 4부 예배: 오후 12:30</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복합) 수요 3부 예배: 오후 11:3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p>	<p>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30</p>	<p>입킨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권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p>	<p>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계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p>	<p>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하재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복합)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p>	
<p>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경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수요 3부 예배: 오후 8:00</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재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1:30(복합)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p>	<p>큰문교회 담임목사: 나봉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 수요 5부 예배: 오후 8:30</p>	<p>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p>	<p>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2:00(복합)</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 5부 예배: 오후 7:00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p>	
<p>템파라교회 담임목사: 윤경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복합)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12:10 수요 5부 예배: 오후 7:00(복합) 수요 6부 예배: 오후 7:30(복합)</p>	<p>아트포드재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12: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45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복합)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복합)</p>	<h3>하와이지역</h3>		<p>아가페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7:30 수요 5부 예배: 오후 8:00</p>	<p>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복합)</p>	<p>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 3부 예배: 오후 7:30 수요 4부 예배: 오후 8:00(복합)</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 4부 예배: 오후 7:00 수요 5부 예배: 오후 7:00 수요 6부 예배: 오후 8:00</p>

“이슬람 알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 강사 공다니엘 선교사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가 '이슬람을 알자' 주제와 '무슬림에게 복음을'이라는 주제로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찬양채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 전문가인 공다니엘 선교사(덴버신학교 객원교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첫날에는 △이슬람의 최근동향 △이슬람 교리와 율법 △세계관 중심의 접근법, 둘째 날에는 △신론 및 코란 △코란의 이사와 성경의 예수 △코란 주석과 이슬람 △common ground 접근법 등을 다뤘으며 셋째 날에는 △수피즘과 민속 무슬림 △무슬림 전도와 제자훈련 등을 다뤘다.

첫날 열린 세미나에서 공다니엘 선교사는 “현재 이슬람 선교는 기로에 서있으며 지금까지의 이슬람 선교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슬람 선교는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들이 바라보는 이슬람과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은 다르다. 이슬람은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이슬람을 말하며 감춰야 하는 것들은 감춘다. 따라서 이슬람이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에서 김정환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모두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랍어는 스포큰 아라비크와 리튼 아라비크가 있다. 현재 코란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은 오역된 것”이라 말했다.

공 선교사는 “이슬람은 교리와 율법에 근거한 제도의 집합”이라 정의하며 “코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610년에 만든 것이며 무하마드가 세상을 떠난 632년까지 그가 쓴 글을 모아 만든 책이다. 코란은 622년까지 모은 메카코란과 622

년부터 632년까지 모은 메디나에서 모은 코란이 있다. 메카코란은 우호적인 글들이지만 메디나코란은 당시 유대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라 유대교에 적대적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때 메카코란을 사용하며 적대적으로 나설 때 메디나코란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사용한다. 기도하는 등



세계성령운동뉴욕협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성령충만으로 뉴욕연합 이루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 성령감사 및 뉴욕성시화기도회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이만호 목사)가 지난 8일 플라싱 대동 연합장에서 열린성령감사예배 및 뉴욕성시화 기도회를 가졌다. 이만호 목사는 “성령운동뉴욕협의회가 뉴욕에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박종윤 목사의 찬양, 기도 이원호 목사, 성경봉독 손석완 장로, 특송 박해철 선교사, 말씀 장영준 목사, 축사 이규섭 목사, 합심기도, 축시 조이호 목사, 축주 유진용 집사,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장시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준 목사는 “성령의 사람들”(행2:1-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역사하시는데 구약은 성부하나님, 신약은 성자하나님, 현재는 성령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성령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구원과

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기도가 율법 이전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공 선교사는 “코란에 카피르라는 단어가 있다. 카피르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누군가 죽임을 당해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카피르라 지목된 자들은 폭력을 가해도 되고 살해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된 미군들이 테러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그들이 카피르라고 지목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공 다니엘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이슬람을 연구해서 선을 긋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성경과 코란의 차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슬림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아시시의 프랜시스처럼 무슬림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선교사가 해당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무슬림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슬람 선교가 복음의 이름으로 나아가려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 참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영생장로교회 설립30주년 기념 메시아 공연

“전세계 모범적 교회로 발전, 하나님께 감사”

영생장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가 설립3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예배 및 장로장립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30년 근속 성도들에 대한 표창식도 열려 이대우 교협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임직은 계만혁 집사 등 10명이 장로로, 임명호 집사 등 13명이 권사로, 김용찬 집사 등 3명이 집사에 취임했으며 이세하 집사 등 15명이 안수집사에 임명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걸 목사는 임직자들과 교우들로부터 서약문답을 들었고,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 후 공포, 권사취임 서약문답과 기도, 공포, 연이어 집사취임과 집사 안수식에서도 서약문답,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와 공포의 순으로 식을 거행했다.

설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가 “언약백성”(역대상1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데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더욱 유명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하여야 한다”며, “직분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계만혁 장로 등 10명의 임직자들의 담사와 교회가 임직자에게 주는 기념품 증정식이 있던 후 임직자들은 교회에 심방을 댈 헌대를 선물로 증정했다. 임직자에 대한

권면은 백승노 원로장로가, 교우들에 대한 권면은 이상록 목사가 했다. 이어서 Stewart Greenleaf 상원의원의 영상축사와 퀸즈장로교회 장영준 목사의 영상 메시지, Dr. Peter Lillback 웨스턴시터신학대학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임직예배가 끝난 후 영생교회 설립 후 30년 동안 근속한 오완진, 최덕순 부부 등 87명에게 감사패가 증정됐고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수고한 박한용 장로 등 9명의 성도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한 스페셜 이벤트로 30년을 근속한 이용걸 목사에게 근속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고인들은 합찬 바수로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저녁에는 영생심포니오케스트라와 연합합창대가 헌말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53곡 전곡을 연주하는 공연을 했다.

3시간여에 걸친 공연은 1천3백여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163명의 연합찬양대(지휘 박해란)가 영생오케스트라(지휘 김태훈)에 맞춰 우렁차게 찬양했다.

공연에 앞서 이용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영생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호심상 허허벌판 위에 등지를 틀은 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꽃피듯 성장해 전 세계적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해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 드린다”며 “오늘밤 연주되는 메시아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밤이 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영생장로교회)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 총회 개회예배와 이슈토론을 마치고 기념 촬영

“바른 나팔 부는 언론이 되라”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 총회, 서인실회장 이정현부회장선출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회가 지난 8일, 9일 레돈도비치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서인실 국장(크리스천투데이), 부회장에 이정현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사장)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8일 오후 7시 이상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사회로 드러진 개회예배는 변영의 목사 기도, 송정명 목사 설교, 김영대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지난 일년 동안 교계 활동에 많은 지원과 호응에 감사한다”고 전하며 민수기10장 말씀으로 “바른 나팔을 불어주어 복음을 전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언론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초빙된 남가주교협회장 변영의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김영대 목사, 미기총 대표회장 송정명목사와 함께 진행된 이슈토론에서 WEA와 장재형, 그리고 한기총이란 제목으로 서인실 국장이 발제자로 섰다. 서인실 국장은 장재형 목사와 기독교일보에 관련,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한기총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교계와 온 성도들이 모든 이단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한 단체장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시하고 온 세계가 정리되지 않는 이단문제 혼돈 속에 있음을 시사하며 언론을 통해 이런 것들의 선을 그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날 오전 9시에 개최된 총회는 조명환 목사 사회, 서인실(서기대행) 회원 점명, 이성자(부회장/회계) 회계보고에 이어 안건토의와 임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선거는 본 모임이 ‘세계한인기독교인연합회’임을 감안, 해외지역에서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에 따라 박재호 목사(남미복음신문)를 회장으로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를 부회장으로 추대했으나 두 회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극구 사양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여 무기명투표를 실시, 서인실 국장을 회장으로 이정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우간다 축구선교단 기금마련 2011 미주축구최강전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웹사이트서 혜택증명서 발급 가능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가져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문)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한인타운연장자센터는 8일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제1회 한인기자 안전모임 자리에서 사회보장국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레딧은 40점으로,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크레딧(1크레딧 당 1,13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62세 이상의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양육 배우자 뿐 아니라 이혼한 배우자(결혼생활 10년 이상)에게도 전 배우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국국적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경우 퇴직연금, 장애연금, 유가족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마다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할 필요 없이 세금 25.5%를 공제한 금액을 사회보장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사회보장국 실비아담 전문가는 “혜택증명서(Income Verification Letter)를 얻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는 연장자분들이 많은데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신

청 시 10일내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은퇴연금 금액을 미리 추정해볼 수 있는 은퇴연금 금액 추정기 뿐 아니라 혜택 신청,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작업을 웹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생활보조금(SSI) 신청 시 브로커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서지구 캐시킵 사회보장국디렉터는 “하루 평균 400여명이 월서지구 사회보장국을 찾는다. 이중 30%가 한인인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어렵게 생각해 브로커와 동반한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들이 단순히 주소를 바꾸고 차량 편을 제공하는 대신 500달러까지 요구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모든 설명을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한국어 서비스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한인타운연장자센터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현)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017 E. Olympic Blvd., #280 Los Angeles CA 90002 www.lifebook.co.kr
TEL: 213.382.4828 Fax: 213.382-1184 Email: word@lifebook.com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자리가 명품 행운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테라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8-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사동형 복사스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수
전환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제1회 미주축구최강전 우간다 축구선교단 기금마련

우간다 축구선교단 기금마련 2011 미주축구 최강전이 미주축구 협회가 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 축구협회 주관으로 10일 애너하임에 위치한 아메리칸 스포츠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4팀(OC1, OC2, OC3, OC4), LA팀, 하와이 2팀, 아틀란타 팀, 시애틀 팀, 플로리다 팜과 팀과 교회 및 단체팀(은혜한인교회, 사랑의빛선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Go Susho 족구팀, JWC, Royal Imex Inc) 등 그리고 한국에서 3팀이 참가했다. 이날 우승은 OC1팀이, 준우승은 OC4 팀, 3위는 아틀란타 그리고 4위는 OC2팀이 차지했다.

이날 우승한 OC1팀의 임금빈 목사는 “우간다 축구선교단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된 축구대회가 매우 뜻깊게 생각돼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대회는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회 신년하례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신년하례회가 2012년 1월 9일(월) 오후 6시 플라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사랑나눔 일일차집'

'뉴욕 나눔의 집' 후원을 위한 '사랑나눔 일일차집'이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뉴욕나눔의집(35-24 Union St, #B Flushing)이며 점심바자로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등이 있다.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가 18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본 교회 4개 찬양대와 관현악대가 함께 한다. 25일(주)에는 성탄주일 축하예배가 있으며 교회학교 부서별 특별축하 순서가 있다.

필그림교회 성탄절 음악회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24일(토) 오후 7시 성탄절 음악회를 갖는다. 이날 필그림 찬양대가 헨델의 메시아를 공연한다.

뮤지컬 '히즈 라이프' 공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성탄 맞이 뮤지컬 '히즈 라이프(His Life)'를 공연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수-금요일은 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1시

아름다운 동행... 이민목회 모델 제시

11일,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로써 설립 38년된 퀸즈장로교회는 2대 담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내년 2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장 목사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년간 장 목사님을 도왔던 그 열심을 체계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사했다.

예배는 위임국장 이원호 목사 사회로 기도 김혜천 목사(전노회장), 성경봉독 황경일 목사(노회서기), 설교 장영춘 목사, 특송 글로리아중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부부와 위임받은 박규성 목사부부(왼쪽)

장영춘 목사는 "목사직의 영광" (엡4:7-12)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라며 "퀸즈장로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목사직은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의 임무와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훈련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박규성 목사에게 헌들을 넘겼다"며 "이제 열 자리에 동승해서 기도하며 지도해서 차가 잘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자신은 앞으로 "선교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지혜와 담력이 있는 박 목사에게 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위임예식은 서약/위임목사서약, 교인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정, 권면 위임목사에게(부총회장 김남수 목사), 교인에게(부노회장 조

문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말씀연구, 기도, 인내, 겸손은 전제하고, 첫째 장영춘 목사를 잘 모시라"며 "장 목사가 맡으시지 않은 무언의 말씀도 잘 헤아리고 또 교인사랑을 아나갈이 하며,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하고,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와 감사는 축사 강기봉 총회장, 김두해 전노회장, 축가 찬양대, 열쇠증정,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답사 박규성 목사, 인사 및 광고 박선도 장로, 축도 이규본 전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는 박규성 목사 사모에게 승용차를 선물했으며 각 기관별로 박 목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박규성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퀸즈장로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 뉴욕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목사로 섬겼다. 이후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7년을 사역했으며 브라질노회 노회장과 브라질한인목회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 7월에는 장영춘 목사 위임예정자로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해 2년간 수업을 받고 올해 7월 공동의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화합하여 하나되는 목사회"로 출발 뉴욕한인목사회 제40회기 회장이취임식 및 성탄예배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김승희 목사) 제40회기 회장 이취임식 및 성탄축하예배가 지난 12일 저녁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목사회는 이번회기 표어를 "화합하여 하나되는 목사회"로 정했다.

김승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40은 성경에 매우 중요하다. 좋기도 하고 연단의 숫자이기도 하다. 어려울 때 책임을 맡았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 40회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최예식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삼 목사(부총장사단), 성경봉독 캐더린 목사(상담분과), 특별찬양 밀알선교중창단, 설교 김남수 목사(선교), 헌금특송 유경화, 봉헌기도 오태환 목사(기도), 축도 최우영 목사(자문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벧전1: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혼탁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이끌고 가기 위해 우리 목사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김승희 목사를 뽑으셨다. 교회 가 갈길, 교회가 서야할 위치와 할

일을 보여주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종들을 위로하고 비전과 꿈을 제시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총무 김희복 목사의 사회로 이임사, 취임사, 감사패 증정, 공로패 증정,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시무기도, 축사, 권면, 광고, 만찬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회기 후원에 감사하며 40회기를 열심히 도와서 칭찬 받은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장소를 제공한 퀸즈장로교회 박진하 목사에게 감사패를, 39회기 회장, 총무 서기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시무기도는 김종덕 목사, 축사는 교협회장 양승호 목사, 권면은 방지각 목사가 맡았다. 광고는 서기 김홍서 목사, 만찬기도는 이광희 목사가 했다.

40회기 목사회는 임원 10명, 협동총무 36명, 자문위원 12명, 특별분과위원장 18명, 분과위원장 40명 등 총 116명의 거대 조직을 구성했으며 19일(월) 복원교회(담임 최예식 목사)에서 첫 임실행위를 갖는다. 또 목사신분증도 발급한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협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뉴욕전도협 2011축복전도부흥성회 및 전도세미나

뉴욕전도협의회(회장 김희복 목사)가 주최한 2011축복전도부흥성회 및 전도세미나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뉴욕행복교회(담임 이성현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유영완 목사(천안 하늘중앙교회 담임).

유영완 목사는 12일 "살아난 셋강 이야기"(눅10:1-6)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지역의 큰 교회가 도와야 작은 교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해온 3중목회(성령사역, 금회사역, 선교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또 3년간 했던 산기도 제목 "천안시의 복음화와 성화, 교인을 위한 기도,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면서 교회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했다.

유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께 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받은 축복을 나누자는 생각으로 "셋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원리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컨퍼런스, 파위전도대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파위전도대회로 인해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한 실례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는 파위전도대학을 세워 5학

기 동안 한 학기당 35-45교회에서 수강자들이 등록했다고 말하고 오전에 강의를 듣고 점심식사 후 3명이 한 조로 전도를 나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전도 후 돌아와 반드시 보고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강조하며 목요일 전도는 대상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토요일 재방문을 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순서를 설명했다.

유 목사는 파위전도대학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며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동반성장하는 윈윈 결과를 가져왔다고 간증했다.

"구원선인가? 유망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첫날 저녁 "불신자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라"(마13:1-9), 둘째 날 "구슬 서말도 꿰어 야 보배"(마5:16), 셋째 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눅18:26-27) 제목으로 각 설교했다.

13일 세미나는 "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나무"(요1:35-46)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 뉴욕지부 창립4주년기념 감사예배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뉴욕지부 창립 4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예배는 사회 박대성 목사(뉴욕영광장로교회), 피아노 반주 박창환 장로(뉴욕연합장로교회), 환영인사 임근영 목사(뉴욕지부소장), 기도 양승구 목사(뉴욕세교회), 설교 문석호 목사(효신교회), 축송 밀알합창단, 패밀리터치 이야기(영상), 간증 이종수, 헌금기도에 조관태 목사(우리교회), 헌금송에 김형숙 목사가장, 그리고 축도에 조병광 목사(KPCA동북노회 노회장) 순으로 이어졌다.

패밀리터치 이야기에서 정정숙 원장은 "뉴욕지부 설립후 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감사하며, 뉴욕지부 발전을 위해 이사로, 자원봉사로, 후원자로 섬겨주시길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뉴저지 본원예

서 자원 봉사자들과 스텝 가족을 초청, "자원봉사 감사만찬"을 열었다. 정정숙 원장은 패밀리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최찬희 이사장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선물을 증정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소개와 소감발표, 서로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6명의 청소년 봉사자들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Reading & Writing Club과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돼주는 Senior 봉사활동에 대한 간증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패밀리터치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비영리단체로 한인 가정과 사회를 건강케 하는 전문 가정사역기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917)698-6065, 뉴저지 (201)242-4422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p>								<p>기쁨과 영광교회 담임목사: 권희수 교역목사: 김태원 주일 10:00, 11:30 주말 2:00, 3: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00(월-금)</p>	
<p>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45</p>	<p>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45</p>	<p>뉴욕독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15</p>	<p>뉴욕필라델피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원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15</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어종원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뉴욕순복음인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45</p>	<p>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8:45</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철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풍아일렌드성경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배다니교회 담임목사: 장승환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어린교회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한미음침교회 담임목사: 박아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하는 후원교회들</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아르헨티나 새인교회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이상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파라과이언교본부교회 담임목사: 임한근 목사 주일 10:00, 11:00 주말 2:00, 3: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후 9:00</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p>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는 교협”

남가주교협 제42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제42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변영의 목사는 취임사에서 “오늘 교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남가주교협이 남가주의 1,350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협, 최선을 다해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교협, 소수의 목회자와 교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교협, 교포사회와 함께하는 교협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연합에 있어서 교협의 본질과 존재성을 뛰어넘는 세력, 이단 등



제42회 남가주교협 이취임감사예배에서 변영의 신임회장이 민중기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 연루돼 문제가 되는 교회나 목회자 등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런 문제가 없다면 모두 협력해 나가겠다. 42대 교협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조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진유철 수석부회장의 사화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기도 이정현 목사(부회장), 특별찬양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합창단, 성경봉독 엄규서 목사(부회장), 찬양 벨엘장로교회 찬양대, 설교는 김세운 박사(폴리신학대학원 KDMIN 신약학 교수)가 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중재 교수의 헌금송에 이어 이임사(민중기 목사)와 취임사(변영의 목사)가 있었으며, 축하영상은 길자연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수원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47대 총회장), 축사는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영명인 목사(OC교협회장), 송정명 목사(미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신연성 총영사(LA 총영사)가 했다.

축하찬양은 글로벌메시아 여성합창단(지휘 노현경 단장), 기념패 전달에 김사무엘 목사(증경회장), 회장단 소개에 변영의 목사, 이사회 소개에 서영석 장로(신임 이사장), 광고에 박세한 목사(총무), 축도에 김도석 목사(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예수제자훈련학교 9기 개강

예수전도단 나사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는 9기 예수제자훈련학교 저녁반을 2012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주간에 걸쳐 매주 월, 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오전반을 1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2주간, 매주 수, 목, 금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개회한다. 또한 이 과정의 필수코스인 전도여행은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전도여행비 별도) 마련된다. 학비는 700불, 신청비 20불이며 장소는 저녁반 새생명아시아교회(캘리포니아 쇼피블 맞은편), 오전반 하늘빛선교교회(글렌데일)이다. 신청마감은 12월 31일까지. ▲문의: (626)398-2340, (714)323-2215 최성봉 목사, (213)760-0099 정한두 간사.

소리엘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아프리카 가야와 난민돕기 소리엘 지명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3일(금) 저녁 8시 다승교회(담임 이근환 목사), 24일(금) 저녁 7시30분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25일(주) 오후 5시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다승교회(562)405-1988, 대흥장로교회(310)719-2244, 오렌지힐교회(714)633-3104

창작극 '아빠의 집' 공연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토) 오후 7시 본당에서 창작극 '아빠의 집'을 공연한다. 크리스마스 씨가 극본을 쓰고 제임스장 씨가 연출한 이 연극은 불경기와 실직으로 인해 어렵사리 장만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그린 내용이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818)834-7000 ext.100



베데스다대학교 뮤지컬학과 '축복' 공연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종합예술 분야인 뮤지컬학과는 지난 9일 저녁 베데스다대학교 Grace Hall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겪게 되는 미국 이민 1세와 2세들의 갈등과 한인 청소년들이 갖는 정체성의 혼란 극복 문제를 다룬 '축복'을 공연했다. 본교 뮤지컬학과는 지난 2007년 신설돼 매 학기마다 공연을 하며 그동안 'The Victor', '요셉의 꿈', '용서', 'His mission', '사랑스런 주님 음성', 'When I Lost', '인생을 재다', 'LA 신데렐라' 등 여러 작품들을 공연했으며 학생 및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뮤지컬 '축복' 두 번째 공연은 16일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가졌다. ▲문의: (714)517-1945, 683-1210 (박준호 기자)



남가주목사회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중앙이 회장 김영대 목사.

“건전한 기독교사회 꿈꾸며 겸손히 최선 다할 것”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임원단 기자회견서 비전발표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 임원단(회장 김영대 목사)이 12월 12시 로텍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가주한인목사회를 시작하며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설명했다.

회장 김영대 목사는 “신구원인 이취임식 이전에 새로운 임원단이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건전한 기독교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사회 임원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과 언론이 함께 가야 한다. 앞으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좋은 정보 알려주고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도 바로 전해주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 걸쳐 목사회를 위해 일해 주신 증경회장님들과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한다. 기독교신민들이 목사회를 안아주며 함께 모든 일을 이뤄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총무 허귀남 목사는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있음을 시사하며 우선적으로 오는 △18일(주) 회장 이취임식 △22일 오전 7시30분 본측 식당에서 남가주교협 임원들과 만나 △23일 그랜드파크 양로병원 방문 △1월 소강석 목사초청 세미나 등을 꼽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자”

LA챔버라이어 정기공연 성료

LACC(Los Angeles Chamber Choir/단장 오승일, 지휘 이정욱, 반주 조혜경, 울려 울려주) 찬양제가 9일 오후 7시 30분 일선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찬양제는 라틴어로 쓰인 시편 100편을 가사로 하는 Lasso의 합창곡 Jubilate Deo를 막을 올렸으며 1장 기쁨의 찬양, 2장 현대성가, 3장 Gotets for the Season of Christmas, 4장 Christmas Song 등

으로 구분된 각 장마다 찬양대원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참석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초청된 캘리포니아어린이합창단원들은 맑고 고운 목소리로 Procession, This little Babe 등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요한 함 거룩한밤,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 관



2011공훈단체연합송년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공훈단체연합송년모임 5개 단체 350여명 참석

2011 공훈단체 연합 송년모임이 11일 오후 6시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종려교회(담임 전성도 전도사),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사),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선교사), 남가주농악교회(담임 강성희 목사), 남가주말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 등 5개 단체에 소속된 350여명의 스텝과 봉사자들이 참가해 성탄과 연말을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남가주말선교단 찬양팀(인도 강경원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행사는 조영권 목사의 기도, 제2회 CBS 창작복음성가제 미주대회 대상 수상 및 2011 CBS 창작복음성가제 금상수상자 최윤영 자매의 특송이 있었으며 이은철 목사(UMC 원로)가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그래도 가야할 우리들”(요19-1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한영호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각 선교회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 소개시간, 각 단체별로 나서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이현수 전도사(나눔선교회)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강성희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챔버라이어 정기공연 성료

LA챔버라이어 정기연주회에서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객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한껏 안겨 주었다.

LACC는 선교를 목적으로 2005년에 창단돼 그동안 교회행사,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 성서화운동, 양로병원, 커뮤니티 행사 등에 찬양으로 섬겨왔다. (박준호 기자)



LA챔버라이어 정기연주회에서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세계로번아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병길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saintmission.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nashun.com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2: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nashopen.com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재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nashwest.com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dundun.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lead.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0 주요 3부 예배: 오전 1:1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love.com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dahung.com	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권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diaspora.com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dream.com	라하브라 심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lahabra.com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요 3부 예배: 오전 1: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peace.com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bangju.com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연식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00 www.bethel.com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vancouver.com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bible.com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강재경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15 주요 3부 예배: 오전 11:15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bridge.com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world.com	사상조교회 담임목사: 권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sasang.com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권영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sandieg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2: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andyok.com	임비안침례교회 담임목사: 한봉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imbrian.com	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임영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1: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occ.com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2: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west.com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8:00 www.eunghan.com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inland.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심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주요 3부 예배: 오전 12:45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yourglory.com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12: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changdae.com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요 3부 예배: 오전 7:30 주요 4부 예배: 오후 7:30 www.cornestone.com

GP선교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한 해를 훌쩍 떠나보내는 느낌이 드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저로서는 보람도 있고 도전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과 사역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감사 제목

△한국에서 사단법인 글로벌호프의 등록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하였습니다. △선교단체 국제네트워크의 국제대표를 맡아 동경대회 후속사업을 지속하게 하신 △GP연구개발원장으로부터 한국교회 선교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섬김 △국제적인 모임들과 미국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주신 △가정적으로 아내 최경련 선교사는 상담과 중보 기도사역 등을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스테판이 몽골에서 단기선교사역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수학(시카고 대학)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단기선교를 가서 섬길 수 있게 하였고, 이젠 바울은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고, 디모데가 전역장학금을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입학하여 잘 적응하고 있음 (UPenn에서 국제관계학 공부)



활동보고사항

1.1 연구개발원의 사역(Research and Development): 2008년 11월부터 선교분야의 연구와 개발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GP연구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연구개발원은 한국교회 선교정책수립, 세계교회 선교전략수립, 한국교회선교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발표하여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선교센터에서 발행한 세계 선교현황 포스터를 한글로 발행하고 보급하였습니다.

2)GP선교회의 현황, 선교사 책무에 대한 연구, 선교사탈락의 문제, 이슬람권선교 전략모임, 선교사 생활비 규정에 대한 대책 등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3)현재 장데이비트 선교사, 김현숙 간사와 현장의 선교사 연구원

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2 선교개발과 네트워크 사역: 선교는 협력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현대의 가장 복잡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합의 필요는 인정하나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선교기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랄프윈터 박사의 제안으로 2005년 암스펠담에서 28개 세계적인 단체들과 선교협의회들이 모여 GNMS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2009년 1월에 저를 국제대표로 임명하였습니다.

1)선교기구 국제네트워크 사역(Global Network of Mission Structures):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진 선교단체들과 국가와 지역의 선교협의회들을 엮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동경대회 이후 소통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복을 피하고, 소외된 사역과 지역을 찾아내어 남아있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직도 어떠한 미전도 종족에게 누가 어

려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은 Hope Line 2000입니다. 선교사들이 양육하며 차세대지도자가 되도록 키우는 아동들을 결연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자세한 사역에 대한 보고는 www.globalhope.kr를 꼭 참조하여 주십시오).

3)미얀마와 인도의 지도자양성 사역

미얀마 현지 지도자인 옹방 박사과 함께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미얀마연합신학원(MCTS, Myanmar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은 학생들이 70여명 수학하고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함께 일해 온 옹방 박사는 이제는 미얀마교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미얀마복음주의신학교 교장으로서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교수

원들을 더 교육해야 합니다. 파 자매를 필리핀에 보내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수요원들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교수요원들의 숙소가 너무 열악하여 개축이 필요합니다. 인도 사역은 현지 동역자인 찰코 토마스 박

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Ebenezer Bible College and Seminary 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신학교협의회(ATA)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학교로 발전하였고, 학교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지난 2월말에는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토마스 박사의 열정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70여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전체 학생은 200여명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일인당 매월40불의 정기적인 장학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성탄과 새해에 주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드립니다.

조용중, 최경련, 스테판, 바울, 디모데 드림



선교지 편지

필리핀

안녕하세요.

주님이 주신 2011년이 저물어 갑니다. 갈수록 세계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지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나 온지 16년이 지난 가운데 올해는 9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지난 4월과 5월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후원 교회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2011년 한 해도 이곳 필리핀의 남부 잠보앙가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숙사 공사 완료

지난 2월초부터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7월말에 드디어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숙사가 없어서 선생님이 임시 양호실의 2층 집대에서 생활하였는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선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새로운 선생이 학교에 왔을 때, 머물 장소가 제대로 없어 그동안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층은 시멘트 건물이고, 2층은 나무 건물입니다. 기숙사 안에는 방이 모두 5개로 선생님이 생활하는데 많이 편해졌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간에 재정이 모자라 한국에 잠시 두 달간 다녀왔고 그때 준비된 재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기숙사에 머물고 집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갑니다. 집에서 이를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주일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림빠바 새희망 학교

지난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6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선생들



4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반 학교보다 기독교 신앙으로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절반은 무슬림 학생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가톨릭 학생들이지만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작한 학교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나하나 체계를 바로 잡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 전역에 있는 어떤 사립학교보다도 수업료가 저렴합니다. 한 달 수업료가 한국 돈으로 1500원입니다. 수업료가 아주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수업료를 제때 못 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오후에 비가 자주 내리면 많은 학생들이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하고, 어느 학생들은 점심

핀 교육청의 정책이 많이 바뀐다. 그래서 유치원 교실도 하나 더 필요하고, 5학년 교실 하나, 6학년 교실 하나가 더 필요해서 조만간 교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서남 아시아 세미나와 현지인 초청 세미나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마닐라에서 동서남 아시아 선교대회가 있어 저희 가족이 참석하였습니다. 동서 남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미나와 전락 회의를 하였고 각 분과별로 나누어 토론, 교제를 하였는데 귀한 모임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잠보



시간만 되면 집에 가서 오후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태풍이 불면 아버지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다보니 카사바(고구마 비스킷)로 하루 세끼를 먹습니다. 학교에 올 때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부끄러워 수업에 자주 빠지곤 하는데 앞으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2주 동안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몸의 장기를 빼내어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부모들이 무서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 되어 정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모두 있지만 2012년에 5학년이 공부할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교실 3칸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필리

핀가 도시의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20여명을 초청하여 4박 5일간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피츠버그교회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초청 세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명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쉽게 풀어 복을 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고, 호텔에서 제공되는 귀한 음식과 강의 때문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제목

△뉴홈(새희망)학교 안에 교실 3칸이 더 필요합니다. 유치원교실, 5학년 교실, 6학년 교실입니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요한데 우물 설치를 위해 우물 공사를 하는 업자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액과 경험 있는 업자) △림빠바 마을에서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따우숙 무슬림 출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매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윤, 공윤자 선교사
▲이메일: ohngongtak@hanmail.net

Advertisement for New York Kom Tang featuring a cow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anhattan and New Jersey locations.

Advertisement for Dynamics World featuring an Adidas logo and promotional offers for church logos and print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SBM (Seoul Bible Movement)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faith, life, and culture.

Advertisement for the iPhone app '미주크리스천신문' (Mizukristian Shinmun) with a photo of a hand holding a smartphone.

Advertisement for YooTravel featuring a blue banner and text about Asia and Korea flight tickets.

Advertisement for Light & Love featuring a graphic of a lightbulb and text about mission and love.

Advertisement for a mission trip to 44 countri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icipating churches and individuals.



탈진과 스트레스 (2)

황희숙 박사
(글로벌멤버케어센터 대표)



[수 회에 걸쳐 연재될 이 칼럼은 황희숙 박사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 Min 학위논문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탈진의 증상

크리스티나 매슬랙(Christina Maslach)은 "탈진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적 압박의 결과로서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및 신체적 문제를 도와주는 사명을 가진 전문인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탈진의 증상이 나타날 때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탈진됐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탈진은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스왈드(R. M. Oswald)는 탈진의 증상을 신체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든 에너지의 감소, 일이나 직업에 대한 실재감이나 사래가 적은 것에 대한 소외감과 지출의 불균형, 다른 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절망감, 세계관이 흔들리는 이상의 상실, 자신이나 타인, 일이나 조직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입장, 모든 자원을 탕진한 듯한 자기 소진으로 언급했다.

프로이덴버거(Freudenberger)가 제시하는 탈진의 일반적 증상들은 극도의 피로, 고립, 권태감과 냉소주의, 점점 증가하는 조바심과 성급함, 자만심, 자기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일하는 방식의 변화, 망상증, 정체성 상실, 심신의 질병, 침체, 심각한 침체 현상, 자살 충동이다.

탈진의 요소와 진행 과정

매슬랙은 탈진의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순서대로 발생한다고 분명하

력 부족, 자기 비하, 환상에서 깨어난 느낌, 환멸, 자기 정체성의 상실, 정신 착란 등이 있다. 셋째,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영적인 진공 상태,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 등이다.

탈진에 취약한 유형

프로이덴버거는 탈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 (1) 헌신된 일군형 (2) 실제로 많은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나 행정가 (3) 독불장군형 (4) 동정적 전문가 (5) 사회생활을 포기한 일군형.

탈진 검사 방법

매슬랙의 탈진검사지(Maslach Burnout Inventory=MBI)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는 탈진을 "일종의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과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라고 했다.

탈진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크리스티나 매슬랙은 "탈진은 이따금 일어나는 위기보다는 만성적이며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만성적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에 대해 지적했다.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관계를 도식화해 설명한다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탈진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탈진의 개념 간의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스

스트레스는 '경계반응기', '저항기', '탈진기'로 점증

탈진은 스트레스 대처과정 중 성공 못한 마지막 단계

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탈진의 과정을 ①정서적 소진 ②비개인화 ③소진된 개인의 성취력으로 보았다. 매슬랙은 도와주는 사람들의 탈진은 불가피하게 그들이 속해있는 조직(예를 들어 그들의 일상적 생활, 가정, 의뢰인과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일터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기저기 조직은 탈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탈진의 세 가지 영역

호킨스(Don Hawkins) 등은 탈진 현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인 영역: 등이나 목이 아픈 것, 편두통, 불면증, 식욕상실, 권양, 고혈압, 되풀이되는 감기, 소화불량, 알러지, 그리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정신적인 영역: 한 인격체나 직업인에게 나타나는 환멸감이나 패배감, 분노, 냉소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태도, 성급함, 무력감이나 절망감, 자기 의욕 등의 좌절감, 좌책감, 어떤 일을 완벽하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느낌, 무관심, 집중

트레스와 탈진 증상 간의 관계는 인과 관계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유기체인 인간에게 전달됐을 때 반드시 특정한 탈진 증상이 출현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스트레스와 탈진 증상에는 일대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가지 스트레스도 사람마다 개별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탈진 현상이 한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탈진이 아무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여도 그것의 상호 작용은 인간의 내부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령 특정 스트레스는 반드시 특정 탈진 현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의 개별적인 특성상 범칙으로 성립되기 힘들다. 스트레스와 탈진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탈진은 스트레스만큼 보편적이지는 않다. 물론 누구나 탈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탈진이 나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월 교회의 주인 (마12:1-13)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을 얹어 치장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성전모독죄로 국형에 처하게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화 잘못된 논의 (마12:14-21)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여겼고 다음에는 '귀신들린 자'로 비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자 드디어 죽여 없애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모여 논의했습니다. 사람끼

수 서비스 정신 (마12:22-27)
22절은 주님께서 귀신들려 보지 못하고 방아쇠된 자를 고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고 강조하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때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정한 바리새인들의 살해음모가 점점 더 고조되던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고쳐주시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쳐다, 치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설치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점점 고조되게 하는 때

목 하나님 나라 (마12:28-33)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임했다는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연극에는 서막이 있고 여러 번의 본막이 있으며 끝을 내는 끝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때는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오면 때문입니다. 본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음 막은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승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전

금 언어생활에 힘쓰시다 (마12:34-37)
34,35절은 주께서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이 항상 악한 생각만 품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거짓 입술로까지 가게 될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과 같이 담긴 그릇이 있어

토 빈 마음 (마12:38-45)
44,45절은 한 번 주님께 고침받은 영혼이 주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귀신이 나간 집을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집을 회개한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히10:22).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깨끗한 집은 주님 앞에 옛 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면 소용없습니다. 빈 집엔 먼지가 쌓이고 가만히 놔둬도 지저분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탈진은 남을 돕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증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폴 허버트는 실제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없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이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파괴적이 될 때 탈진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Selye(1979)는 '일반적 적응 중추군'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스트레스 단계이론에서 '탈진'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성공하

지 못한 마지막 단계'로 간주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단계는 '경계반응기', '저항기' 그리고 '탈진기' 등의 점진적인 세 단계로 구성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경계반응기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려는 힘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인 '저항기'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수준 이상의 신체적 적응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탈진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로서 스트레스의 누적효과가 너무 심해서 신체가 적응을 할 수 없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탈진과 스트레스와의 차이점
스트레스와 탈진의 개념상의 차이점은 스트레스는 개인의 지각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반면에 탈진은 완중장치나 지원체제를 갖지 못한 중재되지 않은 '부정적인 스트레스'(distress)가 지속된 데 따른 부정적인 결과이다.

또한 스트레스원의 소재 차원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스트레스원이 되는 개인 중심적인 특성을 가졌지만 탈진은 조직 또는 직무 특성에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의 대처는 개인의 특성에 두는 '조직 중심의 소재'를 강조하는 점이다.

365Revival.com
365Revival.com

귀하고 귀함 교회예산 - 단 1불이라도 아껴드립니다

사역의 임초, 불광을 - 단 1%이내로 줄여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의 양날개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을 떠받쳐 드립니다

간짜리 새생명교회, 나성 복부 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남가주 침례교회, 노스웨스트 장로교회, 달라스 한인 장로교회, 대흥장로교회, 동부 사랑의교회, 동문교회, 드림교회, 로고스 장로교회, 만나교회, 몬트레이 비전한국교회, 미주 용인교회, 메릴 한인교회, 배버리 장로교회, 브러지교회, 샌디에고 아메리칸교회, 성림한국교회, 세계성도교회, 세계로교회, 시애틀 영계교회, 시온연합장로교회, 아버디마운교회, 아담스교회, 알버틴 캠퍼스교회, 에브리데이교회, 에실교회, 은혜장로교회, 은혜한국교회, 인랜드교회, 주님이 함께하는교회, 피너스톤 교회, 토렌스 제임장로교회, 토렌스 조은교회, 텍사스 한인장로교회, 팔라다노교회,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하비 성산교회, BIOLA UNIVERSITY, CROWN FINANCIAL MINISTRY, CONCORD UNIVERSITY, FAITHANDWORKLIFE.ORG CALVARY CHURCH, SADDLE BACK CHURCH, KINGDOM BUSINESS ADVISOR GROUP, REVIVALATWORK.COM, R&W, BUSINESS AS MISSION, F&W, ITMC, PGM, ENJOY&TV, H&M, SILKWAVE MISSION, That'sMOTV.com, KBS, MBC 등 항상 성원해주신 많은 교회의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365Revival.com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최저가격, 최고품질로 여러분의 미디어 사역에 든든한 날개가 되겠습니다.

한 영혼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불광을 0%를 지향하는 정품만을 공급합니다

불광을 1%미만의 Philips로부터 Pro Disc, Ritek, Verbatim, Falcon, 불광을 0.05%미만의 Taiyo Uden, Optical Quantum까지 세계 최고 브랜드의 정품 CD-R, DVD-R, DVD-RW를 중간대신 없는 **출세일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Philips 공CD-R: 13.60c부터)

- Blank, Inkjet Printable, Pre-printed타입 등 모든 종류의 미디어 공급
- 24시간 **무로비출**: 남가주 지역(8450이상 주문시)
- 미 전역 **신속배송**: UPS, USPS Ground Service(타주 주문시 면제)

Special CD/DVD 재차 서비스
특별집회/부흥회/행사/시리즈 집회 등을 원만히 보시려면 편집, 제작, 복제, 포지 디자인에서 복제 집까지 합리웃 수준의 판매용 품질로 제작해드립니다.

중소형교회용 휘하 획기적 신 솔루션

혼자서 CD/DVD 복제는 물론 라벨 인쇄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Epson 디스크 프로듀서가 쉽고, 전양 CD는 물론, 특별DVD까지 수방에 관계없이 고품질의 모든 디스크복제와 라벨인쇄를 제공합니다. **당가 \$2,695(회원 특별할인가: 전화 문의 요청)**

365Revival.com의 Special Offer를 방문하셔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푸짐한 할인혜택과 특별선물을 확인하세요.

예산절감 + 인력절감, 일당백 만능 해결사 - EPSON 디스크 프로듀서

- All-In-One: 자동CD/DVD Duplicator + Label Printer
- 복사자가 부족한 교회에 인성맞춤
- 자유로운 수량조절로 5-400장의 디스크 복제에 최적
- 빠른 속도: Label Print 시 60-70장/hr, Label Print + CD Dup 시 40-45장/hr
- 효율적 개별 링크 원가기능으로 낮은 유지비 및 운영비
- 컬러로 100장까지 무인 자동 CD/DVD복제 및 라벨인쇄
- 간단한 작동법과 다양한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미 전역을 커버하는 Epson의 A/S망

미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Epson의 Nationwide A/S Networ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nline진단/상담 및 무료 부품수리/교환 서비스
- 1 year warranty; Extended care plan available

Epson America, Inc.
3840 Kilroy Airport Way Long Beach, CA 90806
discproducer.epson.com

최상품질의 모든 Media Supply 완벽 구비
Labels, Sleeves(Paper, Color, Clear Plastic)
CD/DVD Cases, Maters, Envelopes, Inserts, Hubs

Revival 멤버십 실시: 모든 미디어 및 서플라이 구입시 3% 할인

빠르고 저렴한 CD/DVD Duplicators

정확한 복제, 빠른 속도, 가장 낮은 비용 및 고품질, E7 Enterprise급, 엔터프라이즈급, 최신편 집회복합, 최신편 집회복합, 최신편 A/S 및 최상의 프로그

신규 CD/DVD/Duplicator & Media supplies
365Revival.com
FAITH & WORKS Media Corporation
OC/SD/BAY 1221 E. Dyer Road Suite 290, Santa Ana, CA 92705
LA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1007
INLAND 20635 Valley Blvd. Bldg. A, Walnut, CA 91789
☎ 24시간 직통: 213-985-3088 / 949-742-2600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아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호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Fax.(310)719-2229
등문교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483-6625 Fax.(213)483-6675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 Fax(916)482-5571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재 23814 S. Vermont Ave., Harbor, CA 9071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성서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병용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6-0554 (310)515-7207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순복음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Fax.(718)321-9394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Tel.(718)899-8309 Fax.(718)899-8433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729-0854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월셔중앙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